

2023 새해 이렇게

김철우 보성군수

“회천·득량·벌교 관광벨트화… 사각지대 없는 복지 실현”



보성·벌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울포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농어민 공익수당 임기 내 120만원 목표… 초·중 무상급식 지원

“다시 뛰는 보성 3·6·5”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중단 없는 보성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신년 인터뷰에서 “초심을 잃지 않으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수 있다는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의 자세로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끈기 있게 노력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3대 SOC 프로젝트 ▲보성600 ▲5대 핵심목표를 담은 ‘다시 뛰는 보성 3·6·5’를 통해 통해 중단 없는 보성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3대 SOC 프로젝트는 보성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타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3대 SOC는 생활, 산업, 관광 분야 필수 인프라로 주요 사업은 ▲보성·벌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 ▲경전선 KTX 이음 ▲조성제2농공단지 ▲울포항 국가 어항 승격

▲울포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여자인 국가갯벌 해양정원 ▲벌교·장도 간 통합관광 테마로드 등이다.

김 군수는 ‘보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생각으로 해양레저와 해양생태를 축으로 하는 해양관광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회천에서부터 득량, 조성, 벌교로 이어지는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남해안을 대표하는 명품 해양관광거점으로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여자인 국가갯벌 해양정원 조성은 218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보성갯벌을 세계에 알리는 생태 플랫폼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되는 ▲안심600 사각지대 없는 ▲복지600 등 600사업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해 모든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간다.

‘강한 보성’의 첫걸음인 5대 핵심 목표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행복 보성을 만든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지지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간다.

일한만큼 대우받는 고소득 농림축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60만원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임기 내 12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기 위해 공급대 조성과 제도 시행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농업용수 관정 개발, 대규모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농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가도우미,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으로 바쁜 농민을 돕는다.

그는 또 유망 농특산물 수출기반을 조성해 해외시장 진출에 힘쓰고, 보성물을 통한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로 판로 걱정 없이 농어업인이 본업

에만 전념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군은 명품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사업과 축산악취개선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과 곤포사일리지 지원 등으로 경영비 절감에도 힘쓴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어족자원 보강, 보성차와 같은 지역 특색 자원을 6차 산업 분야까지 적극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간다는 목표다. 일자리·산업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 좋은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확대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에 힘쓸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은 규모면에서 작은 지자체이지만 발전 잠재력과 군민의 지력은 어느 지자체 보다 크고 훌륭한 곳”이라며 “민선8기는 민선7기에 유전한 대형사업들을 가시화하고 내 삶이 체감하는 변화를 군민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남해안 흑두루미 보호하자” 보호벨트 주도



2023. 1. 12.(목)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입체영상관실. 순천시의 철원군, 서산시, 여수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등 6개 지자체가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철원·서산·여수 등 7개 지자체 협약... 먹이 제공 방식 개선 등

순천시가 흑두루미 보호와 보전을 위한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완성을 위한 노력에 가시화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6개 지자체장과 흑두루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별종위기종 흑두루미 종 보전을 위한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완성이 협약의 목적이다.

노 시장은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해 강원도 철원군,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남도 여수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등 6개 지자체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정부에 흑두루미 서식지 분산을 위한 남해안 벨트 조성을 건의했다.

협약은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지자체장 네트워크 구성 ▲서식지 위협요인 분석, 관리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경험과 지식 적극 공유 ▲흑두루미 분산 및 상시 방역 시스템 구축 협력 ▲개체군의 변화 등 모니터링 정보 교환 및 정기 워크숍 개최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에 건의한 인안들은 흑두루미가 농경지 안에 있는 전봇대 전선에 걸려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서식지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확대 대상지 총면적은 109ha로 전봇대 161개를

지중화하고 용수로 관로공사, 흑두루미 영농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여수, 광양, 고흥, 보성 등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조성을 정부에 추가로 건의해 세계적인 흑두루미 탐조관광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생태가 개발을 억제해 도시의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순천이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다”면서 “순천이 보유한 흑두루미 서식지 관리의 경험과 지식을 지자체와 적극 공유하고 별종위기종 흑두루미 종 보전을 위한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 문척·간전·토지면 472곳에 태양광

군, 3년 연속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선정

구례군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상가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 구례읍, 마산면 375개소, 2022년 광의면, 산동면, 용방면 434개소를 추진했다.

군은 앞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지난 3월 자체 공모를 통해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선정했으며, 7월 공모를 신청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개·심층

·총괄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472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에 한발 더 앞장서겠다”면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 전남 첫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학생부담금 시비 지원으로 교육 공공성 강화... 학부모 부담 경감

광양시가 전남도 지자체 중 최초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2023년 학생 1인당 초등학교 15만원, 중학교 19만 5000원, 고등학교는 24만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해 각각 20만원, 26만원, 32만원으로 상향해 수학여행비 지원 확대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의 2023년과 2024년의 지원 차액인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6만 5000원, 고등학교 8만원을 광양시가 학교 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상은 수학여행을 추진하는 지역 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약 4300명이며, 시는 2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2023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보편적 교육복지 분야에 반영했다.

도 교육청 지원과 시 보조금 지원으로 학교에서는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경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3월 중 학교로부터 수학여행 지원 수요조사 및 사업 신청을 받아 4월 중 각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상의 수산시장 찾아 ‘방한장화 나눔’



여수상공회의소가 16일 여수 중앙선어시장과 여수수산시장을 찾아 ‘사랑의 방한장화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 뒤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여수상공회의소 제공)

여수상공회의소가 16일 여수 중앙선어시장과 수산시장을 찾아 ‘사랑의 방한장화 나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추운 겨울철 수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방한장화를 무료로 나눠주고, 상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이번 방한장화 나눔 캠페인이 작게나마 전통시장 시장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곡성 ‘두꺼비마을’ 본격 한달살이

여수시 20일~25일 32개소

주·정차 단속도 일시 완화

여수시가 설 연휴 시민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 32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기간은 명절 연휴 전날인 20일 오전 8시부터 연휴 다음 날인 25일 오전 8시까지다.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은 시청로터리, 학동선소, 오림동 등 32개소다. 서시장, 교동시장, 진남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도 일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관광객이 다수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동도와 돌산공원 주차장은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개방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완화로 귀성객과 상가 이용객 뿐 아니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도 활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청년들이 농촌 빈집 리모델링해 거주...23일까지 2기 참여자 모집

곡성군이 전담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창작소 동행(대표 전민수)의 ‘두꺼비마을’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한 달 살이에 들어갔다 밝혔다.

전담형 청년 마을 만들기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사업비 3억원이 지원되며 전남에 5개소가 선정됐다.

곡성군의 ‘두꺼비마을’은 “두껍아, 두껍아. 한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전래 동요를 모티브로 삼았다. 유입 청년들이 노후된 농촌마을의 빈집을 직접 디자인하고 사공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현재 두꺼비마을 1기 참여자들은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곡성에 거주하며 한달살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디자이너, 미디어 제작, 청년센터 매니저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청년들로 구성

됐다.

두꺼비마을 1기는 청년들에게 곡성의 매력을 알아가는 ‘농촌 이해 프로그램’과 셀프 인테리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두꺼비유치원’을 진행 중이다.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본격적으로 건축 기술 관련 자격증 취득과 과정까지 지원하는 ‘두꺼비 실험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두꺼비마을 1기의 시작과 함께 2기 참여자 모집도 진행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23일까지며, 2기 프로그램은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두꺼비마을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소식과 2기 지원 방법은 인스타그램 @toad_st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두꺼비마을에서 특별한 가치와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두꺼비마을 2기 모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